

도 탄소산업 성장에 가속도 붙는다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 등 14개 정책과제 발굴 보고... 시책화 방안 모색

전북도가 탄소산업 정책과제 14개를 발굴해 시책화를 추진하면서 탄소산업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2일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월 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총 14개의 정책과제를 발굴 보고했다.

보고회에는 위원장인 진흥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4개분과에서 지난 1년 동안에 걸쳐 발굴해 낸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책과제 발굴성과와 앞으로 시책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는 탄소정책, 탄소융합, 탄소소재, 나노탄소분과 등 4개의 세부분과가 정책과제 발굴을 담당해 왔다.

이들 4개 분과는 그동안 분야별로 전북 탄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큰 틀의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매월 두세 차례의 기획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총 14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발굴 성과를 발표하게 됐으며, 각 분과는 발굴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리개발과 타당성확보 등 완성도를 높여 국가정책화 또는 도 시책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과제들은 그간 전북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굴해온 R&D 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제는 전북 탄소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제기돼 온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 탄소기술 상용화기반 강화, 창업, 인력양성 등 정책과제들이 중심을 이룬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사업 반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의 경우 1차년도 발굴, 2차년도 세부기획보고서 작성, 3차년도 국가사업 반영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탄소산업발전위원회 4개분과는 1차년도 정책과제의 발굴과 병

행해 일부 과제들을 2차년도에 바로 국가사업 또는 도 시책으로 반영시킨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구축', 'C-STAR 기업 육성', '탄소기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앞으로 탄소산업의 성장에 가속도를 붙일 정책과제가 많이 발굴됐다는 평가다.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은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연구기관으로 전북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인프라로서, 연초부터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해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과제이다.

이 시책은 전북 2020 대도와 미래비전에 포함시키기도 했으며 앞으로 대선 공약에도 반영시켜나갈 핵심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구축은 탄소밸리 개념부터 기술개발현황, 기업현황 등 전북의 탄소산업과 관련한 토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온라인 포털서비스로 제공해 성공사례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STAR 기업 육성은 탄소 대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탄소산업의 시장 창출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기업 가이드라인 마련은 탄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탄소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발굴한 과제이다.

진흥 정무부지사는 "탄소법 제정으로 이제 국가는 의무적으로 탄소소재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 내고 정부에 제공해서 최대한 국가정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전북 탄소산업육성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로 탄소관련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에 40여명이 참여하는 등 총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도내 건설수주 전년비 2.9% ↑ 지역업체 보호제도 추진 '효과'

올해 도내 지역건설산업 계약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건설업 계약 등 수주금액이 전년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초과금액의(종합공사 100억원 이상 등) 49% 이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 물품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하도급계약 내용 등 전 계약과정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했으며, 내년부터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고용창출 우수사업 등에 가산점 부여(0.5~2점), 임금체불 기업에 신인도 점수 감점(0.2점 / 건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17.3%로 저조함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및 국무조정실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 중에 있다. 한편, 기재부 장관 고시사업으로 지정되면, 지역업체가 최소 40% 이상(턴키 20%)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인재용 기자

'동부권 순회 정책 간담회' 68건 사업 발굴

9건 내년 추진 · 2018년 국비 확보 32건 · 부처건의 협의 추진 7건 등 후속조치

전북도 균형발전에서 진행한 '동부권 순회 정책 간담회'가 순창군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서부권에 비해 발전 격차가 있는 동부권 6개 시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부권이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각 시군에서는 사업 발굴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68건의 사업 발굴이 있었다.

발굴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남원이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 등 13건, 진안 이 부귀산 빛빛고원 조성 등 11건, 무주가 태권도 문화관광특구 조성 등 10건, 장수가 장수 가야 유적정비 등 13건, 임실이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10건, 순창이 인체유용 미생물산업 육성 등 11건이다.

특히, 장수군에서는 겨울철 유희농지를 활용한 얼음 썰매장을 조성하는 '겨울애 눈두렁 레이스장 운영' 사업을 자체군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북도는 발굴사업에 대해 도 담당

부서가 사전 검토 후 설명하고, '도·시군-전문가-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원, 도 출연기관(전북연구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여해 발굴사업의 추진방향 및 동부권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간담회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발굴 사업 중 남원,임실, 순창이 연계 추진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웃 산업화 방안' 과 순창군의 역점사업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추진방안 및 쟁점에 대한 심층토론회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웃 산업화의 경우 토론회 등에서 웃 수요 및 공급 현황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육성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번 방문에서 발굴된 68건의 사업 중 9건의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 본격 추진되며, 이외에 2018년 국가예산 확보(32건), 부처건의 협의 추진(7건), 2017년 공

모사업 응모(9건) 등 후속조치에 도가 시군과 협력해 발굴사업의 정책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발굴사업 외에도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의 협조가 필요하고 쟁점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심층토론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아간 희망법률상담실 이용 증가

전북도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올해부터 아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하자, 도민들이 저녁시간에 '희망법률상담실'을 찾아와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도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을 희망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훈인, 이훈, 양유권, 상숙,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민사, 가사, 형사 소송 및 기타 법률문제의 관련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실을 찾는 도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장진영 소방위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서비스' 발굴 등 공로 인정

전북도 소방본부 장진영 주무관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선발하는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다.

장진영 달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로 행정발전을 견인한 공로가 인정돼 정부3.0분야 달인으로 선정됐으며, 전북도청 공무원으로 지방행정 달인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주무관은 정부3.0 우수정책인 '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서비스'를 발굴, 추진해 행정자치부 정부3.0 3개분야 과제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전북도 공무원 제안대회에서 도민안전관련 정책을 제안하여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지리산 등 119신고 불통지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및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공용기지국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용기지국에 선정됐으며,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을 통해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해 도 재정절감에 큰 역할을 기여했다.

최근에는 빈번한 고속도로 사고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신고시스템을 발굴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장진영 소방위는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방행정의 달인은 전국 36만 명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 열정을 신선했으며,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을 통해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해 도 재정절감에 큰 역할을 기여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과 업무협약

전북연구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12일 연수원 컨퍼런스홀에서 선진화된 지방행정 구현과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목적사업인 지역정책 연구기능과 지방공무원 교육 기능의 협력은 연구 및 교육의 상호 보완과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 및 공무원 역량 강화 공동연구,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 등 관련 학술행사

개최, 교육인프라 상호지원 등이다.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전북연구원의 연구기능과 연수원의 교육기능이 상호 융합해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교육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협업모델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직 전북연구원장도 '연구원의 지역정책개발 역량과 연수원의 인재육성 역량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